

'잠재성장률 2%p 제고'를 위한

#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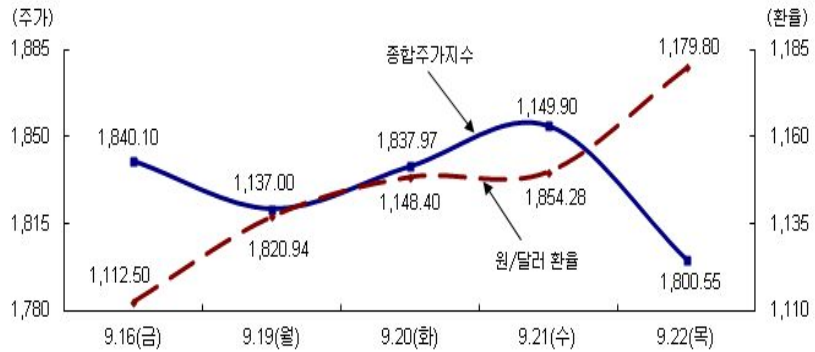
HRI Weekly Economic Review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9.16~9.22)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11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한 상 완 산업연구본부장 (2072-6230, swhan@hri.co.kr)
- 작성 : 주 원 연구위원 (2072-6235, juwon@hri.co.kr)  
 이원형 연구위원 (2072-6233, lee@hri.co.kr)  
 조규림 연구원 (2072-6240, jogyurim@hri.co.kr)

##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 1.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배경

최근 글로벌적인 서비스 시장 개방의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되고 있다. 특히 대외적으로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의료관광시장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빠른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한 적절한 공급도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과 관련된 중요한 양대 법안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활성화되고 국내 대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해져 의료서비스산업의 한 단계 도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긍정적 효과)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 될 경우 첫째, 의료기관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고부가가치화 및 품질 향상이 산업 자체의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내국인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부응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의료서비스 산업 자체의 성장 뿐 아니라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현대경제연구원이 자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료산업의 향후 전개 시나리오별 전제를 충족시킨다는 가정하에 '부가가치유발액 / GDP' 비중은 '내수 시장 지향형' 0.3%, '의료관광 산업화형' 0.5%, '핵심 산업화형'이 1.0%로 추정된다.

① (시나리오 1: 내수 시장 지향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데 그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5조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조 8,000억원 (GDP의 0.3%)이며 약 4만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② (시나리오 2: 의료관광 산업화형)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의료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10조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5조 1,000억원 (GDP의 0.5%)이며 약 10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③ (시나리오 3: 핵심 산업화형) 영리법인 도입으로 의료산업(의료서비스 + 제약 + 의료기기)이 경제의 핵심산업화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26조 7,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0조 5,000억원 (GDP의 1%)이며 약 18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된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부작용) 그러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공공 의료서비스 기능 약화, 의료 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 소득 계층간 의료 서비스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 기본 전제 충족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

	내수시장지향형 (시나리오1)	의료관광산업화형 (시나리오2)	핵심산업화형 (시나리오3)
생산유발액	5조 9,000억원	10조 9,000억원	26조 7,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 8,000억원	5조 1,000억원	10조 5,000억원
고용창출인원	4만 8,000명	10만 2,000명	18만 7,000명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경제적 추정 효과는 기본 가정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힘.

### 3. 시사점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 활성화되어 의료산업 자체의 발전뿐만 아니라 의료산업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양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둘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육성 및 연구개발 능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셋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산업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넷째**,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관 산업의 동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공공 의료서비스의 약화 및 계층간 서비스 격차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I.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배경

###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sup>1)</sup> 도입의 배경

#### - 서비스 시장 개방의 추세에 대응하여 국내 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 필요성 대두

· 국내 의료서비스 산업은 대형 병원들이 영리 목적의 활동을 할 수 없게 강제되어 산업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부진

※ 국내 병원들은 의료의 공공성 차원에서 의료인과 비영리법인의 투자 외에는 외부에서 자본 유치가 불가능

· 국내 의료서비스는 세계적 수준의 의료 기술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투자가 어려워 산업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 - 대외적으로는 급격히 팽창하고 있는 의료관광시장의 수요를 확보할 필요성이 증가

· 세계 의료관광산업 규모는 2004년 400억 달러에서 2012년 1,000억 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며 의료관광객수는 2010년 4천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됨<sup>2)</sup>

· 그러나 국내 의료관광 산업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은 2010년 8만명으로 태국(156만명), 싱가포르(72만명), 인도(73만명) 등에 비해 미흡한 수준임<sup>3)</sup>

#### - 대내적으로 빠른 고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 다양한 의료 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 필요

· 국내 의료서비스 부문은 고령화 등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의료 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상황

· 또한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에 대한 대응력 부재로 내국인의 해외 원정 의료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내국인의 해외 의료비 사용액은 연간 약 1,500~1,800억원으로 국내 전체 보건의료비 48조원(2006년)의 약 0.3% 수준<sup>4)</sup>

1)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자본투자 및 이익배당 등이 가능한 영리법인 형태의 의료기관을 의미함. 현행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개인병원) 비영리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학교법인)에만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

2) McKinsey&Company 및 RNCOS(2008년).

3) 보건복지부, 의료관광사업 성과 및 활성화 대책(2011. 6. 8).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제도적 현황

- (제도적 현황) 제도상 국내 영리 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금지되고 있으며 경제자유구역에 한하여 외국 자본의 의료기관 설립은 허용되고 있음
  - 현재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 및 내국인 이용이 가능하고 외국인의 의사·약사 면허가 인정되고 있음
  - 그러나 외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도 구체적인 절차와 범위를 규정하는 하위법이 만들어지지 않아 형식상의 허용이라는 비판이 있음
  
- (외국 자본 의료기관 설립 관계법의 도입 과정) 2003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외국자본에 한해 외국인 전용 영리 의료기관 설립이 허용
  - 이후 법개정을 통해 2005년 의료기관 명칭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에서 ‘외국의료기관’으로 변경하고 내국인 진료 금지 조항을 삭제함
  - 2006년에는 외국 자본 비율이 50% 이상시 국내 법인과 합작투자를 허용
  - 2011년 8월에는 ‘외국 의료기관 등에서 종사하는 데 필요한 외국면허소지자 인정 기준’ 고시(告示)를 개정해 공포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양대 법안 국회 계류중)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며, 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경우 외국의료기관 설립이 활성화되고 국내 대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설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됨
  -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sup>4)</sup>은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 절차를 구체화하고 원격의료 등 운영상 특례 조치에 관한 내용이며, (소관 상임위: 지식경제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sup>6)</sup>은 제주도 내에 의료특구 지정 및 의료특구 내 국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개설 허용에 관한 내용임 (소관 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4) KDI/KHIDI,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2009).  
 5) 국회의안정보시스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6)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 II.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 (긍정적 효과) 의료서비스 부문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화를 통한 경제 전반의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력 확대가 기대

- 의료기관의 투자 확대를 통한 의료서비스 고부가가치화 및 품질 향상이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짐

- 의료기관의 투자 확대에 의해 첨단 의료기술 도입 및 개발, 의료 시설의 질적 수준 개선 등의 효과가 예상됨
- 특히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으로 의료서비스 산업에 시장 경쟁 원리가 보다 확산되어 비영리의료기관의 서비스 개선으로도 이어질 수 있음
- 민간 기업의 경영 방식이 도입되기 때문에 의료 기관의 운영 효율성이 증대되고 소비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 내국인의 다양한 의료서비스 수요 부응이 가능해지고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서비스 시장이 소비자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소비자의 취향에 맞는 다양하고 새로운 개념의 의료서비스 출현이 예상됨
- 특히 소비자의 복합적인 수요를 반영하는 건강관리, 요양 등 의료서비스의 다양화가 소비자의 후생을 증진시킬 것으로 보임
- 또한 국내 의료기관도 글로벌 트렌드에 맞추어 관광과의 연계를 도모할 것이기 때문에 만성적인 서비스 적자 문제의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됨

- 의료서비스 산업 자체의 성장 뿐 아니라 연관 산업으로의 파급 효과를 통해 경제 전반에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음

- 의료서비스 산업이 핵심산업으로 부상할 경우 제약업, 의료기기제조업, 위생서비스업 등의 기존 후방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인할 수 있음
- 또한 u-health(ubiquitous-health) 산업, 바이오 등과 같은 신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음

- 기본 전제 충족을 가정할 경우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GDP' 비중은 '내수 시장 지향형' 0.3%, '의료관광 산업화형' 0.5%, '핵심 산업화형' 1.0%로 추정됨<sup>7)</sup>

① (시나리오 1: 내수 시장 지향형) 영리법인 도입으로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데 그칠 경우 GDP의 0.3% 부가가치 창출

-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5조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조 8,000억원(GDP의 0.3%)이며 약 4만 8,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수요의 5% 추가 확보를 가정

② (시나리오 2: 의료관광 산업화형) 영리법인 도입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의료관광 수요를 확보\*\*할 수 있을 경우 GDP의 0.5% 부가가치 창출

-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10조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5조 1,000억원(GDP의 0.5%)이며 약 10만 2,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 해외의료관광객 100만명 방한을 가정

③ (시나리오 3: 핵심 산업화형) 영리법인 도입으로 의료산업(의료서비스 + 제약 + 의료기기)이 경제의 핵심산업화\*\*\*할 경우 GDP의 1.0% 부가가치 창출

-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26조 7,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0조 5,000억원(GDP의 1%)이며 약 18만 7,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

\*\*\* 의료서비스 산업 발전에 따른 시너지 효과로 제약업, 의료기기제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어 이들 산업의 무역수지 균형을 가정

< 기본 전제 충족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

	내수시장지향형 (시나리오1)	의료관광산업화형 (시나리오2)	핵심산업화형 (시나리오3)
생산유발액	5조 9,000억원	10조 9,000억원	26조 7,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 8,000억원	5조 1,000억원	10조 5,000억원
고용창출인원	4만 8,000명	10만 2,000명	18만 7,000명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각 시나리오별 경제적 추정 효과는 기본 가정의 충족이 전제되어야 함을 명확히 밝힘.

7) 자세한 추정 방법은 '【별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 을 참조. 현대경제연구원의 추정은 어디까지나 기본 가정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함.



- (부작용) 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으로 공공 의료서비스 기능 약화, 의료 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 소득 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 심화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예상됨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으로의 인력 이동 공백에 따른 기존 공공 의료서비스 기능 약화될 우려가 존재함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시 비영리의료기관으로부터의 인력 이동으로 인해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해져 공공 의료기관의 기능이 약화될 수 있음
  - 더욱이 인력 이동과 더불어 이미 인력이 부족한 일부 진료영역에서 해외환자가 증가할 경우 오히려 자국민들에 대한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이 더욱 감소할 수 있음
- 기존 영세 의료 기관들의 수익성 약화 등으로 의료 산업 전반의 급격한 구조조정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기존 의료기관들의 경우 낮은 수가에 따른 수익 악화, 한정된 시장에서의 과다 경쟁으로 인해 통폐합 및 퇴출될 가능성이 높음
  - 반면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우 수익 창출과 더불어 상대적으로 높은 투자가 가능해 기존 의료기관들에 대한 M&A가 급속히 확대되는 등 산업 구조조정이 예상 범위를 넘어 급격하게 진행될 수도 있음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소득층과 그렇지 못한 저소득층간의 소득계층간 의료서비스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
  - 우수한 의료진이 일부 대형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집중되어 보편적인 의료서비스수준의 향상보다 고소득층 위주로 고급 의료서비스가 제공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과 공공 의료기관 간 서비스 품질 격차가 확대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소득 격차에 따른 의료서비스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음
  - 결국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의료양극화를 촉진시키고 서민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존재

### Ⅲ. 시사점

첫째,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관련 양대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요구된다.

-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인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개정안’ 및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계류중임
- 양대 법안의 조속한 국회 처리로 **의료산업이 국가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임

둘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의 활성화를 대비하여 의료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육성 및 연구개발 능력 제고에 주력해야 한다.

- 전문의료서비스 고급 인력, 의료공학 기술 인력 등을 포함한 의료산업의 인력 기반을 강화를 위한 전문 인력 육성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할 것임
- 또한 의료기술, 첨단 의료기기 및 신약개발 등에 대한 연구개발이 병원을 중심으로 기업·대학과 연계되어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함

셋째, 의료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산업과 연계된 관광 프로그램 및 인프라 개발과 더불어 정부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 의료관광객을 유인할 수 있도록 휴양·레저와 결합된 서비스 개발, 한방을 통한 보양 프로그램 확충 등 다양하고 특성화된 의료관광 ‘소프트웨어의 내실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

- 또한 외국인 환자 및 보호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병원과 주변 지역의 외국인 편의 시설을 확충하는 등 의료특구 및 관광단지의 인프라 구축과 같은 ‘하드 웨어의 개선’도 필요함
-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입국 절차 개선, 의료서비스에 대한 인증제도 도입 등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도 시급함

**넷째, 의료서비스 산업이 경제의 핵심적인 산업이 될 수 있도록 연관 산업의 동반 육성을 도모해야 한다.**

- 의료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동시에 제약업, 의료 기기 제조업 등 전통적인 연관 산업에 대한 R&D지원을 통해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여 의료 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을 향상시켜야 함
- 잠재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바이오의약, u-헬스 기기 등 IT, BT, NT 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지원과 관련 법규 및 제도 정비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해야 함

**다섯째,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에 따른 공공 의료서비스의 약화 및 계층간 서비스 격차 심화 가능성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 공공 의료기관의 고가 의료장비 구매 지원 등 의료시설 확충에 대한 지원과 함께 인력부족에 대한 대비 방안을 마련하여 기본적 공공 의료서비스의 약화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음
- 비영리의료기관에 대한 세제, 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통해 상대적 서비스 수준 격차 확대를 방지하고, 저소득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 강화 등 계층간 의료서비스 접근 격차 확대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주 원 연구위원 (juwon@hri.co.kr, 2072-6235)

이원형 연구위원 (lee@hri.co.kr, 2072-6233)

조규림 연구원 (jogyurim@hri.co.kr, 2072-6240)

## 【별첨】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경제적 효과 추정 방법

### □ 시나리오별 기본 전제 및 최종수요(산출액 추정)

#### ○ (시나리오 1) 내수 시장 지향형

- **의미:** 영리법인 도입으로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는 데에 그쳐 본격적인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의미함
- **기본 전제:** 신규 영리법인이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수요의 5%를 추가로 확보한다는 가정을 기본 전제로 함
- **추정 최종수요 증가분: 총 3조 4,000억원 증가**
  - 2009년 산업연관표상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의 총산출액 67조 6,166억원
  - 내수 시장의 수요 증가 = 67조 6,166억원 × 5% = 약 3조 4,000억원

#### ○ (시나리오 2) 의료관광 산업화형

- **의미:** 영리법인 도입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의료관광 수요를 확보하여 의료서비스 산업과 관광산업이 동시에 성장하는 경우를 의미함
- **기본 전제:** 신규 영리법인이 국내 의료서비스 시장 수요의 5%를 추가로 확보하고 해외의료관광객 100만명이 방한한다는 전제를 가정함
- **추정 최종수요 증가분: 총 6조 2,000억원 증가**
  - = 3조 4,000억원(시나리오1) + 2조 8,000억원
  - 외국인의 국내 의료관광 수요를 약 100만명을 가정
  - 1인당 의료관광 지출액은 2,200달러를 적용(한국관광공사 외래관광객실태조사 中 「연령별 방한목적별 개별 여행객의 지출경비」)
  - 의료관광 활성화에 따른 수요 증가분 = 100만명 × 2,200달러 × 1,276원(2009년 환율) = 약 2조 8,000억원

○ (시나리오 3) 핵심 산업화형

- 의미: 영리법인 도입이 내국인의 의료서비스 수요의 일부를 충족시키고 외국인의 의료관광 수요를 확보하며, 나아가 의료서비스 관련 산업의 동반 성장이 병행되어 의료산업(의료서비스 + 제약 + 의료기기)이 경제의 핵심 산업화하는 단계를 의미함
- 기본 전제: 시나리오 2의 기본 전제와 더불어 의료서비스업 주요 중간재 산업인 제약업, 의료기기제조업의 무역적자 수준만큼 산출이 증가함을 가정함
  - 즉 제약업, 의료기기제조업이 의료서비스업과의 동반 성장 내지는 시너지 효과 발생 등으로 경쟁력이 강화되어 무역수지가 균형을 이룬다는 전제임
- 추정 최종수요 증가분: 총 14조 4,000억원 증가
  - = 6조 2,000억원(시나리오2) + 8조 2,000억원
  - 2009년 의약품, 의료 및 측정기기<sup>8)</sup>의 무역적자 규모는 약 8조 2,000억원
  - 연관 산업 최종수요 증가액은 의약품, 의료기기의 무역적자 규모로 간주함

< 시나리오별 최종수요 증가 >

	내수시장지향형 (시나리오1)	의료관광산업화형 (시나리오2)	핵심산업화형 (시나리오3)
내수 시장 수요 증가	3조 4,000억원	3조 4,000억원	3조 4,000억원
외국인 의료관광 수요 증가	-	2조 8,000억원	2조 8,000억원
연관 산업 산출(수요) 증가	-	-	8조 2,000억원
합 계	3조 4,000억원	6조 2,000억원	14조 4,000억원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자체 추정

주: 표의 수치는 기본 전제가 충족된다는 가정상의 산출액 증가분임.

□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추정

- 영리법인 도입에 따른 '부가가치유발액/GDP' 비중은 내수 시장 지향형 0.3%, 의료관광 산업화형 0.5%, 핵심 산업화형 1.0%

8) 산업 분류상 의료 및 측정 기기가 모두 의료 관련 기기로 볼 수는 없으나 분석의 편의상을 포함시킴.

○ (시나리오 1: 내수 시장 지향형) GDP의 0.3% 부가가치 창출

- 의료서비스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고려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5조 9,000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2조 8,000억원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약 4만 8,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 (시나리오 2: 의료관광 산업화형) GDP의 0.5% 부가가치 창출

- 의료서비스산업과 관광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고려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10조 9,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5조 1,000억원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약 10만 2,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 (시나리오 3: 핵심 산업화형) GDP의 1.0% 부가가치 창출

- 의료서비스 산업, 관광 산업,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생산유발계수를 고려할 경우 경제 전체의 생산유발액은 약 26조 7,000억원이며 부가가치유발액은 약 10조 5,000억원으로 추정됨
- 이에 따라 경제 전체에 직간접적으로 약 18만 7,000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정됨

< 시나리오별 경제적 효과 >

	내수시장지향형 (시나리오1)	의료관광산업화형 (시나리오2)	핵심산업화형 (시나리오3)
생산유발액	5조 9,000억원	10조 9,000억원	26조 7,000억원
부가가치유발액	2조 8,000억원	5조 1,000억원	10조 5,000억원
고용창출인원	4만 8,000명	10만 2,000명	18만 7,000명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국내외 성장률 추이

구분	2009년					2010					2011년 연간(E)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2.6	-4.9	-0.7	1.6	5.0	2.9	3.7	1.7	2.6	3.2	1.5
유로 지역	-4.1	-2.5	-0.1	0.4	0.2	1.8	0.4	1.0	0.4	0.3	1.6
일본	-6.3	-20.1	10.8	-1.9	7.3	3.9	6.0	2.1	3.3	-1.1	-0.5
중국	8.7	6.2	7.9	9.1	10.7	10.3	11.9	11.1	10.6	9.8	9.5
한국	0.2	-4.3	-2.2	1.0	6.0	6.2	8.5	7.5	4.4	4.7	4.2

주: 1) 2011년 전망치(E)는 IMF 2011년 9월 기준이고 한국은 현대경제연구원 전망치임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 한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9월16일	9월22일	전주비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3.83	3.89	3.30	2.05	1.72	-0.33%p
	엔/달러	92.93	88.43	81.19	76.75	76.53	-0.22¥
	달러/유로	1.4413	1.2238	1.3350	1.3873	1.3582	-0.0291\$
	다우존스지수(p)	10,428	9,774	11,578	11,509	10,734	-775p
	닛케이지수(p)	10,655	9,383	10,229	8,864	8,560	-304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4.41	3.86	3.38	3.40	3.49	0.09%p
	원/달러(원)	1,164.5	1,222.2	1,134.8	1,112.5	1,179.8	67.3원
	코스피지수(p)	1,682.8	1,698.6	2,051.0	1,840.1	1,800.6	-39.5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2009년말	2010년		2011년			
		6월말	12월말	9월16일	9월22일	전주비	
국제 유가	WTI	79.35	75.77	91.40	87.94	80.22	-7.72\$
	Dubai	78.06	73.14	88.80	108.20	104.38	-3.82\$
CRB선물지수	283.38	258.52	332.80	329.55	307.24	-22.31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